

분포문화체육센터·도서관 4월 개관

체육시설 4월초 시범기간 무료 이용… 도서관 5월부터 정상운영

IS동서 남구에 기부채납

용호동에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을 갖춘 분포문화체육센터가 오는 4월 문을 연다. 개관식은 4월 12일 개최 예정이다.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근린공원 부지에 건립된 분포문화체육센터는 연면적 36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 북카페·어린이열람실, 2층 분포도서관, 3~4층은 그룹운동실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한다.

체력단련실은 런닝머신, 싸이클 등 42종 144점의 최신식 운동기구가 설치된다. 이용요금은 남구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동일한 한달 성인 4

만4000원, 청소년 3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4월 3~10일 시범운영 기간을 정해 하루 500명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문 강사의 체성분 측정, 그룹운동 지도, 운동기구 사용 등을 안내한다.

분포도서관은 신간 서적 2만4000여 권을 갖춘다. 장서 준비와 도서관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5월말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포문화체육센터는 오는 4월 입주가 시작되는 주상복합아파트 'W'의 시공사인 IS동서가 120억 원을 들여 건립해 남구청에 기부채납했다. 매립지 용도 변경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된 IS동서가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건물을 지어 기부하기로 남구청과 과거 약점했다.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은 남구청이 직영한다. IS동서는 공사비 외에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와 도서관 장서 구입 비용도 모두 지원했다.

체력단련실은 평일 오전 6시~22시, 공휴일(토·일 포함)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분포도서관은 화~토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하고 월요일과 국경일은 한다.

■분포문화체육센터



면적	주요시설
4층 668㎡	체력단련실, 근로자 휴게공간
3층 708㎡	그룹운동실, 샤워장, 라커룸, 안내데스크, 사무실
2층 722㎡	종합자료실, 강의실, 도서관 사무실
1층 561㎡	어린이열람실, 방재센터, 북카페
지하 1층 668㎡	지하주차장, 재활용 창고
지하 2층 320㎡	기계 및 전기실, 보존서고



오는 4월 문을 여는 용호동 분포문화체육센터.

“문현~우암~감만~용당 경전철 유치를”

유치추진위원회 출범… 8년 만에 다시 주민 목소리

문현~우암~감만~용당동을 통과하는 도시철도를 유치하려는 주민 움직임이 8년 만에 재개된다.

지난 9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이들 지역 주민 300여 명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도시철도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위원회 공동대표는 감만1동, 감만2동, 용당동, 우암동, 문현4동의 새마을금고이사장들과 주택재개발조합장 등 9명이 맡았다.

이날 발대식에서 공동대표들은 “우암, 감만, 용당, 문현동은 만성교통체증과 열악한 대중교통, 주거편의가 부족한 부산의 대표적 낙후

지역이자 도심 속 오지로 도시철도를 유치해 쇠락한 마을을 되살리고 후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구상하는 노선은 부산역 인근에서 시작해 기존의 우암철도선을 따라 문현, 우암, 감만, 용당을 거쳐 백운포를 넘어 용호동으로 이어지는 10여 km다. 운행 방식은 경전철, 트램(노면전차), 현수식 공중모노레일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 도시철도를 놓아달라는 요구는 8년 전에도 있었다. 2010년 2월에 경전철유치위원회가 출범

해 주민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해 6월 중순에는 국민적 호소를 위해 6명의 주민대표들이 감만동을 출발해 서울까지 국토도보행군을 벌이기도 했다.

김경태(새마을금고 이사장,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공동대표는 “당시만 해도 도시철도 유치는 무모한 짓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우암부두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곧 조성되고 우암·감만 일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확충은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전병원 다큐 9월 방영… 양국 우호 촉매제될 듯

(한국-스웨덴)

남구청 ‘Let us never forget’ 촬영 관계자 초청 간담회

6·25 당시 서면과 남구에 주둔하며 부산시민 등 200만 명 이상을 치료한 서전병원(스웨덴적십자자전병원)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2년 여 촬영을 마치고 오는 9월 한국과 스웨덴에서 전파를 탄다.

주한스웨덴대사관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Let us never forget(결코 잊지 말시다)’이 편집 등 후반작업을 6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9월 한국과 스웨덴 방송사를 통해 대중에 방영된다. 제작비 총당과 추가 인터뷰 등으로 예정보다 1년가량 늦어졌다. ‘서전(瑞典)’은 스웨덴의 정식 표기 ‘스베리에(Sverige)’의 한자 음역이다.

스웨덴 국군영화제작단 산하 아카(AKA)필름에서 제작한 60분 분량의 영상물은 아군, 적군,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한 스웨덴 의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당시 치료 받은 한국인들과의 우정을 다루고 있다. 1957년 4월 남구 수산대(현 부경대)에서 철수한 서전병원은 이후 60년이 흘러 한국과 스웨덴 국민 모두에게 잊혀 다큐가 방영되면 양국 우호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남구는 지난 19일 다큐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인터뷰한 한국인 환자와 직원들을 초청해 간담회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남구는 지난

2016년 스웨덴 제작진이 한국인 생존 환자를 찾지 못해 다큐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1년 여 수소문 끝에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와 직원 등 1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해 다큐 제작을 도왔다.

스웨덴 촬영팀은 지난해 11월 남구를 방문해 일주일간 머물며 이들을 인터뷰하고 달린 부산의 모습을 촬영했다.

조군자(77) 씨는 결핵 치료 도중 병원이 철수했지만 당시 주치의가 1

년 간 스웨덴에서 집으로 약을 보내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조 씨는 “그 군의관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82) 씨는 급성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서전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 훗날 배구선수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갈 만큼 건강해졌다. 김 씨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맙다”고 말했다.

엑스레이실에서 5년을 근무한 김낙규(85) 씨는 서전병원이 철수하면서 절단 엑스레이 장비를 부산대학병원에 기증해 부산대병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병원 내 야간학교에서 주경야학을 대학을 진학했는데 의료진들이 대학등록금을 두 번이나 대신 내주기도 했다.

또 병원에서 차량정비를 하며 6년 일한 전혜수(96) 씨는 “차량기술 외에 정직과 성실의 중요성을 배워 훗날 종업원 400여 명을 거느린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 4명>



부산 성모병원의 ‘끝없는 베풀’

5000만원 의료지원 끝나자

다시 3000만원 후원 약속

부산성모병원(병원장 김준현)이 남구 내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다시 자금을 열었다. 성모병원과 남구청은 지난 2월 27일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가졌다. 2021년 2월까지 3년간 3000만원을 후원할 계획이다.

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7월 개원 10주년 바치회 수익금 5000만원 전액을 형편이 어려운 남구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올해 초 그 기금이 모두 소진되자 병원 직원들을 중심으로 월급의 일부



를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남구 내 저소득층 주민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해 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등 외래진료와 수술을 무상 지원 받는다. 2016년 협약을 통해 남구 주민 109세대가 1인당 200만원까지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607-4865

남구의회 의원 한 명 준다

선거구 획정… 용당·감만·우암 3명→2명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남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현재 15명에서 14명으로 한 명이 줄어든다. 또 대연지역의 선거구도 일부 조정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조례안’을 통과했다. 개정 조례

안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돼 용당·감만·우암동 지역의 기초의원 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된다. 또 대연6동이 기존의 나선거구에서 가선거구로 편입됨에 따라 남구 가선거구는 대연1·4·6동, 나선거구는 대연3·5동으로 조정된다.

진로교육지원센터

‘꿈오름’ 개소

대연6동 신축 동사 5층

맞춤형 진로체험 등 운영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꿈오름(센터장 성현우)’이 지난 8일 문을 열었다.

대연6동 주민센터 신축 동사 5층에 자리잡은 꿈오름은 상담실, 세미나실, 동아리실, 진로독서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 진로 설계와 학부 모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 상담, 진로심리검사, 진학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구축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교육청과 구청이 공동 부담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일요일·공휴일은 휴관. 한편 센터 개소식은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에 가질 예정이다. ☎637-7100

남구 소공원 10곳 음주청정구역 지정

4월 1일부터 자율 운영

오륙도해맞이소공원 등 남구의 도시공원 10곳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된다.

남구는 음주폐해를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어린이공원 8곳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오륙도해맞이공원과 무재등소공원 2곳을 오는 4월 1일부터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이로써 기존의 남구청사공원 및 평화공원과 함께 남구 내 음주청정구역은 12곳으로 확대됐다.

남구는 이들 음주청정구역에 표시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흡연과 음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구역임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한편 남구와 남구보건소는 구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구역을 중심으로 음주청정구역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607-6415

부산커피협동조합 <5면>

지리산 야생서 인생2막 <7면>

○남구 신규 음주청정구역

구분	공원명	위치	면적(㎡)
어린이공원	문현	문현동136-8	364.0
	개나리	문현동189-22	370.0
	통일동산	문현동189-16	479.0
	대일	대연동1727-1	422.1
	못골	대연동1475-2	499.8
대연혁신도시	술밭	용호동409-5	1,500.2
	대연	대연동1860	4,330.6
소공원	어린이	대연6동산140-24(대연2주막재개발)	2,309.1
	오륙도해맞이소공원	용호동 950	10,659.0
	무재등소공원	용당동 96-3 일원	4,955.0

○기존 음주청정지역

공원명	위치	면적(㎡)	지정일자
구민청사공원	대연6구역	5,780	2008년
평화공원	대연동 706-5	32,015	2016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남구 환경보전업무 최우수상

상금 4000만원 환경분야 투입

부산시 환경보전업무 종합평가에서 남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부산으로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아 관내 환경사업 분야에 투입한다.

이번 환경보전업무 종합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전기

차 확대, 미세먼지 관리 등 환경보전행정 전반의 14개 분야 34개 항목과 지표를 정량화해 평가가 이뤄졌다.

한편 환경위생과 김한범 주무관이 환경보전평가의 공을 인정받아 시장 표창을 받았다.

